

출장결과보고

1. 출장과제: 일본 동북대 초청 한·중·일 식품안전 국제 심포지엄
2. 출장목적: 심포지엄 주제 발표
3. 출장기간: 2008. 10. 16. ~ 10. 18.(2박 3일)
4. 출장지역: 일본 센다이시
5. 출장자: 기획조정실 선임연구위원 최지현

6. 세부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비고
10.16(목)	서울	센다이	○ 출국, 센다이 도착
10.17(금)	센다이		○ 심포지엄 참석 및 주제 발표 - 한국의 식품안전관리동향과 과제
10.18(토)	센다이	서울	○ 서울 도착

7. 주요 출장내용

□ 심포지엄 개요

- 일본 동북쪽에 위치한 동북대학은 2006년 개교 100년이 될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대학임. 동북대 농대는 2008년 아시아몬순지역 국가간 연구협력 차원에서 자원환경경제분야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음.
- 자원환경경제연구분야에서 식품안전분과가 운영됨. 일본은 2001년 이후 BSE와 AI의 출현하면서 일본 정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 한국, 중국, 일본은 상호 농식품의 교역량이 많아 식품안전성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사가 많아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문제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심포지엄 좌장은 동북대학의 후사오 이또(伊藤房雄)교수, 지정토론은 쓰꾸바대학의 마사가쥬 나카끼(永木正和)교수가 담당함.

□ 심포지엄 발표주제 내용과 토론요지

- 첫 번째 발표 주제는 동북대학의 가쥬쉬토 후유키(冬木勝仁)교수의 “일본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취약성”임.
- 후유키교수는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과 식품위생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쌀의 오염 유통사례분석을 통해서 일본의 식품안전관리의 허점이 나타나고 주장하였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국영무역체제하에서의 식품안전관리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함. 특히 쌀 유통의 규제완화에 따라 식용외의 쌀이 식용쌀로 둔갑 판매되는 등 정부의 근본대책이 미흡함을 밝힘. 대책으로서 소비자보호차원의 강력한 식품안전행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함.
- 두 번째 주제는 “한국의 식품안전성관리 실태와 정책방향”로서 GAP, Traceability, HACCP 등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정책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정책추진과 관련한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함. 특히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 수출입 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 공유할 것을 제안함.
- 세 번째 주제는 중국 인민대학의 왕찌강(王志剛)교수의 “중국 식품가공업체의 HACCP도입의향 분석”임.
- 왕찌강교수는 중국의 식품가공업체가 HACCP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와 향후 도입할 업체를 구분하여 어떠한 특성이 HACCP 도입에 영향을 주는지 2단계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규모가 작고 설립연수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지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 종합토론 결과

- 좌장인 이또교수는 종합정리세션에서 한국사례 발표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식품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었고 한중일 협력방안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음.
- 향후 한중일 3국은 식품안전이슈에 대해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지었으며, 긴밀한 연구협력을 약속하였음.